

#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이혼 양상에 대한 내용분석(I)\*

- 1920~1930년대 조선·동아일보를 중심으로 -

## The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Divorce\*

- Focusing on Choseun ilbo and Donga ilbo in the 1920's and 1930's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기금조교수·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강 이

박사과정 최 혜 영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University-funded Assistant Professor & Researcher of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 Lee, Kangyi

Doctoral Course : Choi, Heayoung

###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연구방법

III. 내용분석 결과 및 해석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In this study, the major tendencies of divorce as represented in articles of Korea's daily newspapers in the 1920's and 1930's were explored.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content analysis, and 432 articles related to divorce were selected for analysis from Choseun and Donga ilbo. The main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were classified as attitude toward divorce(negative, acceptive, neutral), present condition of divorce(statistics, survey, analysis), cause of divorce(marital conflict, conflict with family, health-related troubles, financial troubles, and the others), and information offered about divorce(related-laws, prevention & adaptation, and the othe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ost frequently found category was the cause of divorce(given in 47.5% of the total articles), and

Corresponding Author: Kangyi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San 56-1 Shillim-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1452 Fax: 82-2-871-2506 E-mail: kangyil@snu.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 논문은 2004년도 대한가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임.

especially noticeable was an increase of marital conflict. 2) In the case of attitude toward divorce(12.5%), percentiles of negative, acceptive, and neutral attitudes appeared nearly similarly, which is a representation of the transitional tendency of those times. 3) In the 1930's, information offering articles(25.2%) increased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compared with the 1920's.

주제어(Key Words): 이혼(divorce),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 I. 문제의 제기

역사적으로 어려운 고비마다 사회를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위기극복과정에서 최후의 안전장치(하용출, 2001)로 기능하던 한국의 가족이 최근 들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2003년 한 해의 총 이혼 건수 167,096건,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 3.5건(통계청, 2003)이라는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으로 대표되는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이혼 증가의 원인으로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김정옥, 1993),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태도의 변화(허미화, 2002),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식 차이(곽배희, 2002),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Hines, 1997) 등이 지적된다. 또한 결혼을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보던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시각이 서서히 결혼을 개인 대 개인의 결합으로 보는 서구의 개인주의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 규모의 축소로 인한 가족 간의 유대 약화 등이 가져온 가족의 불안정성(김병찬, 1997)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예상된다.

그런데 이혼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생각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물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많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이혼한 사람 또는 이혼 가정의 자녀에 대한 상호 모순적인 태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이혼은 가능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경우 또는 내 자녀의 경우가 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혼을 경험한 주변 사람들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빠

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만 그것이 가족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기의식을 가지고(김홍주, 1993) 가족해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

행동의 변화가 곧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10대~60대 남녀를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한경혜, 이정화(2002)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시 및 농촌 응답자의 대부분이 최근의 이혼 증가 현상을 인정하고 수긍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혼이 당사자들간의 성급한 판단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5%가 본인 스스로의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으나 자녀 문제를 고려해서 이러한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혼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서울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가족과 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 1998, 2000)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서, 그동안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왔던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점차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행동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즉, 이혼과 재혼을 단순히 남녀간의 문제로 보았을 때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부모역할의 측면이라든가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혼과 재혼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내용은 이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 변화가 복합성 내지 상호모순을 보이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의 예외적인 생활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혼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 시각 또는 상호 모순된 태도를 탈피해서 과연 이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할 시점이며, 일반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인식 형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시작에 앞서 그 동안 한국 사회가 이혼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그 변화 양상을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이혼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태도 내지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신문이라는 매체를 들 수 있다. 신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사적 내용과 대중이 관심을 갖는 내용(차배근, 1991)을 매일 전달하며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접하기 쉽다는 점에서 대중 전파력이 높다. 또한 신문은 보도기능, 지도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의 일반적 기능(차배근, 1991)과 함께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기능과 사회 구조의 형태에 맞는 정보나 인식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준우, 1987)을 한다. 즉, 신문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신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신문은 그 사회를 비추는 일종의 거울로서 사회구성원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혼의 어떠한 측면이 주로 신문의 기사로 다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이혼이라는 현상의 어떤 부분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지 또는 이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반영할 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식 형성과도 관련된다.

한편 결혼과 가족, 부부관계의 의미 등과 관련해서 한국 가족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함께 존재해왔으며, 따라서 이혼의 문제 역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1920~3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보도기능과 지도기능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신문의 역할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인 동시에, 결혼과 가족 및 남녀관계 등을 둘러싼 전통적

가치관에 바야흐로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양상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국 규모의 일간신문이 창간되면서 언론투쟁과 함께 문화예술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시기(신용하, 1989)에 해당하는 1920년대에는 전통과 근대가 경합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였다(최세은, 옥선화, 2003). 또한 신여성의 출현으로 인해 전통적 인습에 사로잡혀있던 성과 혼인, 가족을 둘러싼 가치와 규범, 문화적 실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든 시기(김경일, 2000)이기도 하다. 집단보다는 개인이 가족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결혼을 둘러싸고 근대적 담론이 등장하였는데, 특히 연애, 결혼과 이혼, 성욕, 직업과 경제 문제가 1920년대 신여성론에서 빈번히 등장하면서 중심적 주제를 이루었다(권희영, 1998). 1920년대를 지배하던 결혼과 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경향은 193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되었고 그 결과, 가정과 가족 중심의 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점차 세계 공황으로 인한 빈곤과 실업이 한국 사회에도 만연하고 식민지 후기에 일본이 군국주의를 고양함에 따라 자유로운 성과 여성의 해방에 대한 이상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193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신여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보수적인 구여성인 선호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김경일, 2000).

이상에서 살펴본 1920~30년대의 사회분위기는 이혼을 둘러싼 당시의 문제 제기라든가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대별 인식 변화 양상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각 시대상을 반영하고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신문(이인수, 2003)의 기사 내용을 분석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이혼과 관련된 신문기사의 시대별 내용 분석을 통해 이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접근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여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첫 번째 작업으로 1920년 창간된 이래 일제 시대의 폐간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전국 규모의 일간지로 발행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1920~30년대의 이혼 관련 신문 기사를 수집, 그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분포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1920년대와 1930년대로 나누어 주제유목별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 II. 연구방법

1920~30년대의 신문에 나타난 이혼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신문기사를 통해 제시된 메시지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랐다.

### 1.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1920년 창간된 이래 일제시대 때의 폐간시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전국적 규모로 발행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1920년 3월(조선일보)과 4월(동아일보) 창간호부터 1940년 8월 폐간호까지 실린 기사 중 이혼에 관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신문기사 중 제목 또는 소제목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모두 선정한 결과, 총 432건의 기사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2. 분석유목 선정

본 연구에서는 김병찬(1997), 변화순(1996), 장혜경과 민가영(2002) 등을 참고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현황, 이혼원인, 정보제공으로 주제유목을 선정한 후, 각각을 다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분석유목의 선정과 하위 유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 2인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기사의 주제분류유목과 각각의 하위 유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 현상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나 인식의 측면을 다룬 기사를 말하는

데, 주로 사실과 개인 칼럼에 실린 기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유목에 해당하는 기사는 이혼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 또는 찬반과 상관없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기사로 나누어 볼 수 있어서, '비판', '수용', '중립'으로 하위영역을 나누었다.

'이혼현황'은 이혼 실태를 다룬 기사가 포함되는 유목으로, 이혼을 조사를 중심으로 이혼과 관련된 각종 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가 이에 포함된다. '이혼관련통계', '여론조사' 및 '이혼실태분석'으로 나누어지는 하위영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관련통계'는 지방 법원이나 통계청 등 국가 관련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를 통해 이혼의 실태를 보도하는 기사를 말한다. 다음으로, '여론조사'는 각종 사회 단체나 여론 조사 기관 또는 신문사 자체에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를 말한다. '이혼실태분석'은 기존에 발표된 이혼 관련 통계자료나 상담자료 및 기타 자료를 근거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당시의 이혼 현상의 실태를 다룬 기사를 말한다.

'이혼 원인'은 이혼이 성립되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다룬 기사로, 이혼 소송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주를 참고하여(김병찬, 1996, 1997) '부부불화', '가족간불화', '건강상 문제', '경제문제' 및 '기타원인'으로 하위영역을 나누었으며, 구체적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이혼의 일차적 원인에 근거하여 기사를 구분하였다. 하위영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불화'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든가 성격 차이 등 결혼 당사자에 해당하는 부부간의 사적인 갈등이나 문제로 인한 이혼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간불화'는 결혼 당사자와 시부모 또는 그 외에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인해서 새롭게 구성된 식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강상의 문제'는 타 고난 질병이나 배우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혼이 청구되거나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경제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해당되며, 이상의 4가지 원인 이외에 결혼을 지속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청구하거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는 '기타원인'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정보제공'은 이혼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이혼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 경제생활, 자녀양육 등 각종 생활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목은 '이혼관련법안', '이혼예방 및 이혼 후 적응문제'와 '기타정보'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이혼관련법안'에는 이혼 시 자녀양육과 관련된 법안과 재산분할관련법안, 그리고 기타 이혼관련법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혼예방 및 이혼 후 적응문제'에는 이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다룬 내용, 이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혼 당사자의 개인적 적응 문제나 자녀양육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위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 이혼 관련 책이나 이혼 관련 단체 또는 프로그램 안내 등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해외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의 이혼을 다룬 가십성 기사, 이혼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사고기사 등이 '기타 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 3. 분석단위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사(item)로, 1920년대에 해당하는 1920년~1929년까지의 기사 231건, 1930년대에 해당하는 1930년~1940년 폐간 때까지의 기사

201건이 분석되었다. 먼저 신문기사 중에서 이혼에 관한 기사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추출된 이혼 관련 기사를 분석유목에 따라 분류하였다.

유목 분류 작업은 기사제목과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관련 기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제유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선 제목 및 소재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따랐다. 본격적인 유목 분류 작업에 앞서 분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45건(10%)의 견본 사례를 가지고 2명의 분류자간 분석 일치정도를 측정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전 분류 작업에서 불일치를 보인 유목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거쳐 분류기준을 확정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총 기사건수와 각 분석유목 및 해당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기사건수의 빈도와 백분율을 측정하였으며, 기사 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내용분석 결과 및 해석

### 1. 이혼관련기사의 주제별 내용분석

1920~30년대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이혼 관련 기사를 주제유목 및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연대별 빈도분포

주제유목	하위내용	1920년대	1930년대
이혼에 대한 태도	비판, 수용, 중립	44(19.1%)	10(5.0%)
이혼현황	이혼관련통계, 여론조사, 이혼실태분석	31(13.4%)	33(16.4%)
이혼원인	부부불화, 가족간 불화, 건강상문제, 경제문제, 기타	126(54.5%)	79(39.3%)
정보제공	이혼관련법안,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문제, 기타	30(13.0%)	79(39.3%)
	합 계	231(100%)	201(100%)

전체 432건의 기사 중에서 이혼원인 유목이 205건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보제공 유목이 109건(25.2%), 이혼현황 유목이 64건(14.8%)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에 대한 태도 유목이 54건(12.5%)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각 주제유목에 따라 하위영역별 기사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432건 중 54건을 차지한 이혼에 대한 태도 유목을 살펴보면, 불행한 결혼생활보다는 개인의 행복 추구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혼 현상을 수용하는 입장(15건, 27.8%)과 이와는 정반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 현상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보이고 가정과 조강지처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이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19건, 35.2%), 그리고 이혼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다만 이혼의 증가 원인을 시대적 변화나 당시 세대와 연관지어 분석하는 중립적 입장(20건, 37.0%)을 보이는 경우까지, 특별히 어느 한 쪽의 절대적인 우위 없이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지하여가기 어려운 부부관계를 소위 도덕이니 때문에 억매어서 울며 개자먹기로 그대로 계속한다 함은 개인으로나 사회로나 고통과 죄악이 될 뿐이다. 조선에도 리혼이 늘어난다 함은 곧 조선사람도 행복을 구하야 새도덕을 세우라는 용기가 늘어난다는 말이다 (동아일보, 24. 3. 26)

다른녀자로 가려볼 생각을 하는 폐단이 만흔니 만일 이것흔 류행이 되야 가는 리혼 상태가 오래 지속한다하면 그야말로 한심한 일이올시다. 엇지 하는 수업은 절대의 리유가업는 이상 소위 요사히 조선에서 류행하는 리혼에 대하여는 울타고 할수업습니다(동아일보, 24. 1. 9)

리혼문데 가튼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심절한 관계가 있는 절박한 문데이다 더욱이나 모든 것이 과정에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 밋해서 번거히 낫하나는 표현사실의 하나이다(동아일보, 24. 8. 24.)

전체 432건 중 64건을 차지한 이혼현황 유목의 경우, 지방 법원에 신청된 이혼소송 건수를 근거로 이혼자의 숫자와 이혼증가 등 이혼관련 통계를 제

시해주는 기사가 40건(62.5%)으로 2/3 정도를 차지했다. 나머지 24건(37.5%)의 기사는 모두 조사된 이혼 건수를 토대로 당시의 이혼 실태를 분석한 이혼 실태분석 유목에 해당하였으며,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이혼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결과가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예: 동아일보, 85. 3. 6) 당시의 기사에서는 여론조사 유목에 해당하는 기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관련통계 기사는 대부분 조선인과 일본인의 이혼 건수를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 법원에 한 달 동안 신청된 이혼건수에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의 이혼소송 건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실태분석 유목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의 증가 현상을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하고 그러한 변화의 원인을 당시의 변화하는 시대상과 관련시켜 논하거나 이혼의 원인에 대한 분석 기사<sup>1)</sup> 및 조혼과 같은 사회제도의 문제점과 연관시켜 이혼 증가의 원인을 설명하는 기사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제유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혼원인을 다룬 당시의 기사를 살펴보면, 우선 이혼 당사자들의 원적과 살고 있는 동네 번지수, 실명까지 자세하게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하위영역별 기사 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우는 부부불화로, 이혼원인 관련 전체 기사 205건 중 126건(61.5%)을 차지했다. 다음은 기타원인에 해당하는 경우 46건(22.4%)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가서 몇 년째 종적을 알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며, 남편의 범죄, 노름, 아편 중독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했다는 기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가족간 불화 14건(6.8%), 경제문제 10건(4.9%), 건강상 문제 9건(4.4%)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 유목은 전체 432건 중 109건으로, 이혼

1) 그리혼을 요구하는 내막에는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고 또한자기의 이상에 더합지못하며 남자가 악한죄에 범하는일을한다 것이 데일다수한리유이며 그 외 별별괴괴한 사정을가지고 나아가는녀자가 적지아니하다(동아일보, 22. 3. 8)

관련 기사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하위 유목의 분포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과 관련된 가십성 기사, 해외토픽 또는 사건사고 기사가 주를 이루는 기타정보가 81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해서, 독자에게 제공되는 이혼관련 정보의 질과 관련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어느 정도 실질적인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해 주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혼예방 및 적응 유목(16건, 14.7%)과 이혼관련법안 유목(12건, 11.0%)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을 뿐더러, 상담 코너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문의를 하고 이에 답을 해주는 코너라든가 이혼과 관련된 법률을 소개하는 기사는 1930년대부터 비로소 등장한다.

## 2. 이혼관련기사의 시대별 내용 분석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분포를 1920년대와 1930년대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에는 두 시기의 이혼관련기사가 어떤 특징을 보이며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1920년대의 이혼 문제

1920년대의 이혼관련기사는 231건으로, 그 중 이혼원인 유목이 126건(54.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혼에 대한 태도 44건, 이혼현황 31건으로 각각 19.1%와 13.4%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 유목은 30건(13.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혼원인 유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하위 유목은 부부불화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다룬 기사로, 전체 126건 중 77건(61.1%)을 차지했다. 부부불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남편의 학대나 남편이 첩을 얻어서<sup>2)</sup>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와 반대로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기사도 발견된다. 그 외의 이혼 원인을 살펴보면 기타원인 35건(27.8%), 가족간불화 7건(5.5%), 경제문제 6건(4.8%), 건강상문제 1건(0.8%)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의 이혼관련기사는 특히 이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비판적 입장, 수용적 입장 및 중립적 입장이 골고루 등장하는 특성을 보여서, 당시가 이혼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혼 문제에 있어 여성의 입장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이것이 이혼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앞서도 언급했듯이, 1920년대는 신여성의 등장과 함께 자유연애와 결혼, 이혼과 재혼의 자유, 새로운 아내상을 제시함으로써 여성과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최세은, 육선화, 2003), 이러한 입장은 당시 이혼을 찬성하던 의견에 잘 나타나고 있다.

부부간에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만사에 자미와 용력이 생기지 아너서 그의 한평생은 결국 참담한 비극에 빠지고 말것이니 인정이니 테모이니 하야가며 맛당히 떠나라야 할 운명에 빠진 사람지리 매일 낮을 쫓기고 고개를 돌니며 그날그날을 지내면 피차간에 무엇이 쾌하겠슴닛가 ... 자귀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리혼에 찬동할것인가 합니다(동아일보, 24. 1. 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이혼을 수용하던 입장에서는 부부간에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부관계가 깨어진다면 이혼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여성의 등장을 중심으로 했던 이혼 찬성론과는 반대로 당시에는 소위 조강지처를 함부로 내치는 세태를 문제삼으면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 공존했다. 즉, 신여성의 등장으로 여성에 대한 의식과 부부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는 긍정적

2) 시내병옥등일백오십일번디에서는 리등원이라는 녀자는 자귀의 남편되는 신경오를 상대자로 경성디방법원에 리혼(離婚)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을 드른 죽전 디두내외는 피차결혼한지가 열다섯해나 되는데 전기신 경오가항상 주석에 침혹하여 가사를 불고할 안이라 요사이는 엇더한 뜻 가른녀자를첩으로어더가지고 ... (조선일보, 23. 3. 26)

인 면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 신여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자기 부인과 이혼하려 하는 남성들도 증가해서 이것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조선에는 새로운 사상(思想)이 흘러들어오고 따라서 여자교육(女子教育)이 잇게되자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사상을 가진 청년들은 교육을 받고 세상물정을 아는 신녀자와 가정을 일운후 자미있는 세월을 보내라는 생각으로 임의 자기와 결혼해야 자식까지 나흔 죄업은 안해를 짜닭업시 박대하며 쏘는 리혼을 강청하는 청년이 만타는대 이로운하야 죄업시 남편에게 소박을 당하고 울며불며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여 엇지 활줄을 아지못하고 해매는 부인이 매우 만타하여(동아일보, 22. 12. 21)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편이 신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혼을 당한 원래의 부인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마음에 맞지안는 안해이라도 썩 참고 다리고 지내면 사랑의 생애는 회생이 될지라도 전생애에 큰 관계는 업겟스나 한번 리혼을 단행하고 보면 리혼당한 녀자편에서는 거의 전생명 전생애를 그릇치게 되는 참상을 이로우니 묘사히 리혼은 인도상으로 보던지 풍괴상으로 보던지 단연히 반대를 할 받게 업습니다(동아일보, 24. 1. 2)

결국 이혼을 하면 불쌍한 여자들이 일생을 비애와 고통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제도 하에서(동아일보, 25. 2. 9) 세상 어느 곳에도 몸들 곳을 모르고 치욕을 느낄 것이므로 이는 인도적으로 너무 잔인한 일이니 이혼하기보다는 대신 첩을 얻어서 사는 것이 여자를 위하여 도의상 더 좋은 방법(동아일보, 24. 1. 3)이라는 것이다. 즉, 비록 1920년대 들어 신여성의 등장으로 이전에 비해 여성에 대한 의식이 많이 변화하였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여성이라든가 이혼을 할 경우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여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과도기적인 시대상을 반영하며 당시의 이혼 증가에 대하

여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한 점이 발견된다.

如斯히 智識에 渴急하고 教育熱이 膨脹한 時期를 當하여 大端히 遺憾되고 痛歎스러운일은 各地方에서 이러나는 悲慘한 離婚問題올시다 우리社會는 至今波瀾만흔 過渡期에잇스니 이러한 問題가 이러남은 別로 奇異한 現象은 아니겟습니다(조선일보, 24. 5. 16)

1920년대는 일제 지배 하에서 서구의 문물과 사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시기이며, 이와 함께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사회 분위기가 조성(권희영, 1998)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진다. 따라서 이 시기는 기존의 전통사회를 고수하려는 집단과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서구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던 집단이 함께 공존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혼을 둘러싸고 1920년대 당시 등장하던 다양한 의견은 결국 이러한 시대적 양상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혼현황 유목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이혼관련통계 기사(15건, 48.4%)를 통해 1920년대 들어 이혼 건수가 계속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사에서는 주로 각 지방법원에 신청된 이혼소송 건수를 중심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혼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1920년대 말에 이르면 개별 지방 이외에 전국의 이혼건수에 대한 보도 기사도 등장한다. 이러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당시의 이혼실태를 분석한 기사(16건, 51.6%)에서는 이혼 증가의 원인을 시대적 사상의 변화라든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離婚率이 높하가는 것은 朝鮮 뿐 이 아니라 現今世界의 大勢이다 美國이 그러하고 露西亞가 그러하고 其他 先進諸國이 그러하다(동아일보, 28. 3. 2)

이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1920년대의 기사는 총 30건에 달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외국의 이혼사례 또는 이혼율을 다룬 해외토픽, 이혼관련 사건사고 기사 등의 기타정보 유목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이혼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방화를 하거나<sup>3)</sup> 본처를 강도로 만든 사건, 도장을 위조한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이혼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 기사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고 단순 가십성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당시 이 유목에 해당하는 기사는 정확한 정보 제공의 기능은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1930년대의 이혼 문제

1930년대의 이혼관련기사는 201건으로, 그 중 이혼원인 유목과 정보제공 유목이 각각 79건(39.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혼현황 유목 33건(16.4%), 그리고 이혼에 대한 태도 유목은 10건(5.0%)에 불과했다. 1920년대와 비교할 때, 정보제공 유목의 비율이 높아진 반면 이혼에 대한 태도를 다룬 기사의 비율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혼원인 유목은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하위유목 중 부부불화(49건, 62.0%)의 원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도 1920년대와 유사하다. 이외에 기타원인 11건(13.9%), 건강상문제 8건(10.1%), 가족간불화 7건(8.9%), 경제문제 4건(5.1%)으로 나타났다.

이혼현황을 다룬 총 33건의 기사 중 이혼관련통계 기사가 25건(75.8%)이었으며, 이혼실태분석 기사가 나머지 8건(24.2%)을 차지했다. 이혼관련통계 유목의 경우, 단순히 이혼 소송건수만을 제시하던 1920년대와 달리 하루 평균 이혼건수<sup>4)</sup>, 이혼의 증가비율, 결혼 대 이혼비율<sup>5)</sup>, 인구 천 명당 이혼비율<sup>6)</sup> 및 평균 이혼 연령<sup>7)</sup>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1930년대는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오고 그 여파가 국내에도 반영되어 빈곤과 실업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전 시대의 특징이었던 자유로운 성과 여성 해방에 대한 이상이 사라지는(김경일, 2000)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1920년대에 비해 연애와 결혼 문제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태도가 나타나고(권희영, 1998), 신여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적인 구여성이 선호되었다(김경일, 2000). 따라서 당시 사회분위기의 이러한 변화가 이혼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1930년대의 이혼에 대한 태도 유목의 기사 분포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난다. 우선 이혼에 대한 태

도 유목에 속하는 1930년대의 기사는 총 10건(5.0%)으로 1920년대의 44건(19.1%)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하위유목별 분포를 통해 태도의 양상을 살펴보면 비판적 입장 5건(50.0%), 수용적 입장 2건(20.0%), 중립적 입장 3건(30.0%)으로, 20년대에 비해서 이혼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줄어든 반면 비판적 태도는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신문기사를 통해 이혼 문제를 논의하는 절대적 빈도는 1920년대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당시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을 둘러싼 찬반 입장의 주장은 여전히 1920년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혼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던 쪽에서는 당시의 조혼 관례상 결혼당사자의 자유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 결혼 생활이 개인적으로 불행임을 주장하면서, 이는 비단 남성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사랑 없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여성과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의 불행이라고 보았다.

... 남자측에서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녀자를 위하여 업는 사랑을 새로 배풀수는 업살 것이며 이 문제를 이저바리고 다른 문제에 정성을 다하여 포기할수도 업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나흔 아해들의

- 3) 본래부터 성질이 불량하여 매양가뉘뉘공파를이로키여오든 터인데 지난이십일일밤에는 남편되는 박용선과 리혼(離婚)하야달나고 써들며야안하던 뜻에집에불을노하(조선일보, 23. 3. 2)
- 4) 파경지탄(破鏡之嘆)을늘긴 리혼건수는 九천七十七건으로 하로평균 二四.九건이 부부의관계를 뜻는세음이며 그전년과비교하면 八백九十三건의증가이다(동아일보, 31. 7. 21)
- 5) 작년중의 리혼건수는 오천일백삼십칠건으로 ... 그리고 리혼을 혼인에대비(對比)하여보면 리혼은 혼인천에대하여 사십이콤마삼의 비례이다(조선일보, 35. 9. 1)
- 6) 조선안에서 작년-년동안에 이혼(離婚)한 것을 총독부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 매일평균으로 본다면 十六건이라는데 이혼률은 인구천에대하여, 二八건에 해당하다고한다(동아일보, 34. 7. 5)
- 7) 리혼은 대저 어떤 연령에 만히하게되는가 조선인은 남편의나히 이십세이상으로 이십세 미만에 안해의 나히도 역시 이십세이상 이십오세미만이라는 한참 젊은씨에 제일만코 그 다음이 남편 이십세이상과 안해십오세이상 이십세미만이 만흐나 (동아일보, 30. 10. 4)

교육사지도 불완전합니다 또 얼마나 살지는 몰  
오지만 피차에 화평한 맛이라고는 볼수도 업스리니  
이것이 사람의 할 일입니까?(조선일보, 1932. 12. 21)

반면 이혼에 비판적인 쪽에서는 이미 결혼한 남  
성이 소위 신학문을 공부해서 성공한 이후 그 동안  
뒤틀바라지해온 조강지처를 내치는 행위에 대해 엄치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남자가 일시의 행복을 위하여 또는  
공부를 하기위하여 일시방편으로 결혼을 하였다가  
자기가 어떤 정도로 성공한 후에 자기를 밋고있든  
그 안해를 돌보지안코 헌신씩가티 버리고 돌아보  
지 안는다하면 그것은 어떤 사회 어떤 시대를 물론  
하고 용서할수업는일이다(조선일보, 1933. 12. 5)

그런데 이혼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비판, 수용  
또는 중립의 주장을 전개한 1930년대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1920년대에 비해 각자의 입장을 전개하는  
주장의 깊이가 이전보다 좀 더 구체화되어가고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 다음의 기사는 단순히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의 비극만을 지적하던 예전의 주장에서 한 단  
계 더 나아가 개인의 자유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법률 체계의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 父母에게 強制되어 家庭을 일운 男女間에는 相  
互의 無理解라는 深淵과 山嶽이 橫在해 있는 것이  
속일 수 업는 事實이라면 맛당이 이 障壁을 打破하  
여야 하겠건만 朝鮮의 現在法律은 이를 許諾지 안  
는다 意思의 不合 無理解로 일어나는 離婚에 代해  
서 어느 一方이 結婚을 希望하는 때 그 相對方이  
이를 許諾지 안흐면 離婚할 수 업는 것이니 이는  
二十世紀現代文明社會에서는 볼 수 업는 朝鮮의 특  
이한 法律이다 (조선일보, 1932. 4. 19)

또한 이혼을 원하는 남성의 입장 또는 이혼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의 입장만을 거론하던 1920년  
대와는 달리, 1930년대의 기사에서는 이혼 문제에  
있어 자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  
이 등장하고 있다. 이혼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부부  
가 서로 불편한 관계로 살면 결국 자녀 교육도 완  
전하지 못하다(조선일보, 1932. 12. 21일자)고 주장한  
반면, 이혼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자녀의 입장  
을 고려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必要하다고 하여도 當事者에게 一  
種의 悲劇일뿐 아니라 家族이 잇스면 그 家族 특히  
當事者의 直系卑屬에게는 莫大한 不幸을 끼치는 것  
이 普通이다(조선일보, 1938. 9. 27)

이외에도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처해있  
는 당시 한국의 상황과 이혼 문제를 결부시켜서 이혼  
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  
아야 함을 주장하는 등, 이혼 문제를 바라보는 1930년  
대의 시각은 이전에 비해 보다 다양성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특히 주의할 것은 조선사회  
의 리혼의 특수성(특수성)은 과도기(과도기)라는  
것이니 과도기인 사담에 리혼을 활려는 남자측은  
특히 삼가야할것입니다(조선일보, 1933. 12. 8)

정보제공 유목의 기사는 총 79건으로 이혼원인  
유목과 함께 1930년대의 기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뿐더러, 30건에 불과하던 1920년대와 비교  
해서도 많이 증가했다. 또한 하위유목의 분포를 살  
펴보면 - 여전히 기타정보가 50건(63.3%)으로 가장  
많은 하지만 - 이혼관련법안 유목이 12건(15.2%),  
이혼예방 및 적응 유목이 17건(21.5%)으로 나타나  
서, 1920년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혼예방 및  
적응 유목의 경우, 조선일보의 '엇지하릿가'와 같은  
개인 상담 코너를 통해 이혼에 대해 문의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듣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결혼이후부터 시모는 매일욕설만하고 그중에다가  
싸리기도합니다 시모가 그러함으로 남편까지 함  
세때리고 욕설하는 소리에 참으로 귀가압하며 보  
기실타는 소리에 견딜수업습니다 시부는 매일술만  
먹고 주정이요 시모남편보다그러하오니 한집에서  
살수가업서서 남편과 리혼하려고 합니다 그러하오  
니 피차쫓게 리혼함이엇더합닛가 속히 가르켜주시  
옵소서(조선일보, 33. 10. 11)

또 '법률상식' 코너를 통해 이혼이 취소되는 경  
우나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경우를 다룸으로써 이혼  
실행 과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이혼관련법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민법칠백육십육조에는 배우자있는사람은 두번혼인 못한다고하였고 그뿐만아니라 여자가 리혼한뒤 특개월을 경과치아니하면 다시 다른남자와 혼인못한다는 민법칠백육십칠조의 규정이있습니다(조선일보, 33. 6. 23)<sup>8)</sup>

이외에도 이혼과 관련된 강연회를 알려주는 등, 이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의 기능에 비교적 부합하는 기사가 1930년대 들어서면서 등장하고 있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의 이혼 급증 현상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보이고 있는 이혼에 대한 상호 모순된 태도를 놓고 볼 때, 바야흐로 이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와 가치 판단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우선 그 동안 한국 사회가 이혼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아왔는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일반 대중의 인식 형성에 대한 전파력이 높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이혼의 시대별 접근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첫 단계로 1920~30년대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등장하는 이혼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혼문제의 주제 유목을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현황, 이혼원인 및 정보제공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혼에 대한 태도 유목은 비판, 수용, 중립의 3개 하위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이혼현황 유목에는 이혼관련통계, 여론조사, 이혼실태분석이 포함되었다. 이혼원인유목은 부부불화, 가족간불화, 건강상문제, 경제문제 및 기타원인으로 나누었으며, 정보제공 유목에는 이혼관련법안, 이혼예방법 및 이혼 후 적응문제, 기타정보의 3개 영역이 포함

되었다.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근거하여 분석대상 기사를 수집한 결과, 전체적으로 총 432건의 기사가 선정되었다. 주제 유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이혼원인에 대한 기사(47.5%)로, 20년대와 30년대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보제공(25.2%), 이혼현황(14.8%), 이혼에 대한 태도(12.5%)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920년대의 기사(231건, 53.5%)와 1930년대의 기사(201건, 46.5%)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기는 했지만, 주제유목별 분포에 있어서는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다. 20년대의 경우에는 이혼을 둘러싸고 비판, 수용, 중립의 논쟁을 전개한 이혼에 대한 태도 유목의 기사가 30년대에 비해 기사로 많이 다루어진 반면, 20년대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계를 보인 정보제공 유목의 기사가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더러 하위 유목의 내용 분포도 실용적으로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1920~30년대 이혼관련 기사의 주제유목별 분포와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관시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1920~30년대 동안 가장 많이 기사화 된 이혼원인 유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부부불화로 인한 이혼의 증가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시대의 사조가 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이 크게 작용한(김경일, 1998) 결과로 보인다. 즉, 결혼의 조건으로 개인적 가치가 추구됨에 따라서 행복하지 못할 때는 이혼을 해야 한다(권희영, 1998)는 생각이 이혼 소송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러한 변화가 신문기사를 통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신문지상에 등장하고 있는 부부불화의 주요 원인 중에는

8) 이혼한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는 이 규정은 여자에게만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바, 여성에 대한 불평등 또는 억압의 관점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이정희, 2002), 여전히 민법 811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변화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보기 힘든 양상이 발견되는데, 바로 당시의 조혼 풍습과 관련된 부부불화의 발생이다. 소위 신학문을 배운 남편이 부부간의 사랑은커녕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대로 결혼한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이상이 맞는 신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이혼원인과 관련하여 요즘의 논의와는 사뭇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920~30년대의 신문이 당시의 이혼현상에 대해 보인 태도의 다양성은 당시의 과도기적 시대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이혼에 대한 비판과 수용, 또는 중립의 태도가 골고루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과 근대의 상반되는 의식이 경합하던(최세은, 옥선화, 2003; 김경일, 1998) 당시의 태도가 새로운 풍조라고 볼 수 있었던 이혼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는 신여성의 등장으로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과 자유로운 이혼을 보장하는 새로운 가족제도와 평등한 가족관계가 제시되었다(최세은, 옥선화, 2003). 이에 따라, 부부 또는 여성을 가족제도 안의 하나의 부속물로 보던 전통적 시각과 부부 및 여성에 대한 의식이 서구 문물, 특히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서 바야흐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20년대에 비해 이혼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좀 더 우세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어느 한쪽이 급격하게 부각되면 어느 정도의 반작용이 발생하듯이, 이는 당시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던 신여성에 대한 반발과 함께 날로 어려워지는 살림살이 등 사회경제적 상황 및 국내의 정세가 맞물리면서 20년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무엇을 가족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이인수, 2003)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한 시각도 결국 시대적 배경과 무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비록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족문제라든가 부부관계 등과 관련하여 보수적인 태도가 일부 되살아나기는 했으나, 192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이

혼을 둘러싼 관심과 논의의 주요 기조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930년대에 접어들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각으로 이혼을 다루는 모습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1920년대에는 개인의 평등, 그 중에서도 여성해방의 주제가 워낙 부각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이혼의 또 다른 당사자인 자녀의 문제가 도외시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된 논의가 보다 심화되어 가면서 30년대에 접어들면 이혼에 있어 자녀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혼의 발생이나 결과만을 놓고 담론을 벌이던 이전의 태도에서 더 나아가 이혼의 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시도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조혼제도 상의 모순을 언급하면서 이혼보다 조혼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동아일보 1925. 2. 14일자)도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혼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일종의 사회 제도상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이혼현황의 경우에는, 20년대에 단순한 수치만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평균이혼연령, 결혼대 이혼 비율, 인구 천 명당 이혼비율 등 다양한 이혼관련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20년대에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보제공 유목의 기사가 30년대 들어 증가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문 기사를 통해 이혼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점차 구체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혼에 대한 1920~30년대의 신문기사 내용을 고찰해 본 결과, 현대 한국사회의 핵심적 특질로 지적되는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 탈현대적 요소의 공존(장경섭, 2000)이 당시의 이혼 문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 당시의 사회적 맥락 또한 이혼의 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음도 발견된다.

우리가 지나간 시대의 어떤 현상이라든가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 살펴보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기 위함이다. 물론 이 연구는 1920~30년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대별 변화 양상을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문기사만을 대상으로 1920~30년대의 이혼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 있어서 해석상의 제한점이 따른다. 이에 따라 신문기사 이외에 이혼의 시대별 양상을 반영하는 보다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1920년대 이전의 시기와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혼관련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분석이 후속 연구 작업으로 요구된다. 이혼이라는 가족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가족이념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우발적 다원성의 문제, 전통과 근대의 괴리, 의식과 행동의 갈등, 규범과 관행의 괴리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이인수, 2003)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이혼 현상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시각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곽배희(2002).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권희영(1998). 1920~19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사회와 역사, 54, 43-76.  
 김경일(1998). 한국 근대 사회의 형성에서 전통과 근대. 사회와 역사, 54, 11-42.  
 \_\_\_\_\_(2000). 일제하의 신여성 연구: 성과 사랑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7, 45-78.  
 김병찬(1996). 한국이혼의 실태. 경동전문대학논문집, 5, 397-413.  
 \_\_\_\_\_(1997). 한국가족의 이혼에 관한 일 고찰. 경동전문대학논문집, 6, 557-575.  
 김정옥(1993). 이혼의 사회적 배경과 이혼 원인의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김홍주(1993). 한국가족문제의 특징.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 조명. 서울: 문학과지성사.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신양재, 김영주(1993). 한국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분석(II). 대한가정학회지, 31(2), 159-175.  
 신용하(1989).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서울: 문학과지성사.  
 오은순(역)(2002). 이혼가정 아동. 서울:학지사.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1998).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 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1.  
 \_\_\_\_\_(2000).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 구성 II: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0.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이인수(2003). 한국 가족문제의 유형과 특성. 1940-1980년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가정관리학회지, 21(3), 171-180.  
 이정희(2002). 가족법. 서울: 법원사.  
 이준우(1987). 한국 신문의 문화적 기능 변천에 관한 연구: 20-84년 조선,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출판부.  
 장경섭(2000).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양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2000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81-83.  
 장혜경, 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정현숙(1993).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차배근(1991). 커뮤니케이션학개론. 서울: 세영사.  
 최세은, 옥선화(2003). 『新女性』을 중심으로 본 신여성과 가족에 대한 담론. 가족과 문화, 15, 53-75.  
 하용출(편)(2001). 한국가족상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경혜, 이정화(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3.

- 허미화(2002).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 원인 및 이혼가정 아동의 부적응에 관한 문헌적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6(2), 183-205.
- Amato, P. R. (1996). Explain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628-640.
- Booth, A., & Amato, P. R. (2001). Parental predivorce relations and offspring postdivorce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197-212.

- Hines, A. M. (1997). Divorce-related transitions, adolescent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75-388.

(2004년 5월 25일 접수, 2004년 8월 20일 채택)